

1. 메이지유신은 왜 ‘혁명’이 아니라 ‘유신’인가?

당시 일본은 유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유학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직역해보면 성씨를 바꾸고 천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즉, 유학에서 이는 부도덕한 왕조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는 천명에 의거하여 축출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새로운 왕조가 개창된다는 개념이다.¹⁾ 따라서 당시 일본의 상황을 대입해봤을 때,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막부의 쇼군이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는 천황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일본의 또 다른 사상인 ‘만세일계’와 모순되었다. 일본은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래 왕조 교체, 즉 혁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국가라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혁명’이라고 칭하면 유학적 관점에는 들어맞지만 만세일계 사상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국, 그들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혁명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라는 뜻의 ‘유신’을 사용하였다. 즉 반체제, 혁명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칭함으로써 메이지유신이 역성혁명에도 반하지 않음과 동시에, 혈통이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일본의 전통적 군주라는 견해인 만세일계도 합리화하였다. 나아가,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을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만세일계는 큰 역할을 하였다.

2. 일본의 서구적 근대화 성공 이유에 관하여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에 비교해 서구 근대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구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했다.

1. 개방적인 태도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로 인해 1853년에, 중국은 영국과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 1842년에,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강제 체결로 인해 1876년에 개화하게 되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19세기 중반 즈음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활발할 때였으며, 모두 처음에는 쇄국정책을 펼치다가 오래 가지 못해 강제로 개화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 국가 중 어느 국가가 더 처음에 개방적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개혁 의지

삼국 모두 처음에는 개화를 거부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에 따라 서구적 근대화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당한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을 일으켜 1870년대 전반에 걸쳐, 사절단을 통해 서양 과학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국가 제도를 쇄신하고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처럼 타이완 등의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화도 조약과 같은 강제 조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근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나갔다. 중국 또한 아편전쟁 이후 양무운동, 변법운동 등 여러 개혁을 시

1)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역성혁명”. (2020.05.06.)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1&levelId=tg_003_1300&ganada=&pageUnit=10

도해나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청프전쟁, 청일전쟁 등으로 국가가 혼란스러웠다. 1911년이 되어서야 신해혁명이 성공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면서 안정을 찾아갔지만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국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따라서 중국은 강제로 유입되던 외부 문물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쇄신할 여유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경우 강제 개화 이후 1880년 일본과 청나라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자체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882년 반외세, 찬봉건적 성향의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다른 개혁과 반란들이 청과 일본에 의해 진압되면서 외세의 내정 간섭이 심해져갔다. 결국 조선은 1910년 주권을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듯 삼국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개화 이후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혁명'을 추진해나갔지만, 중국과 한국은 여러 전쟁과 다른 국가들의 계속된 간섭으로 인해 '개혁'들이 수차례 실패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빠른 태도에는 당시 집권 세력이 무사들이었다는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본다. 막부는 군사 정권으로, 일본도 유학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당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 비해 덜 이념적이었으며 조선이나 중국의 지배층보다 실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상징적으로 천황이 존재했으며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신격화되었다. 이는 서구의 침략 속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분명히 정신적 위안을 주었을 것이며 빠른 변혁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근세'라는 시기를 거치며 이미 근대화 이전에 도시와 상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이는 서구적 근대화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조선과 중국보다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